

교통정책동향 >>>>

이재영, 이범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브랜드택시 “한빛콜” 운행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브랜드택시 '한빛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한빛콜은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전 시내 총 8877대의 택시 중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각 800대씩 모두 1600대를 대상으로 '브랜드 택시'를 도입, 운행키로 계획돼 있으며 우선 법인택시 800대로 이날 1차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5일 이 택시의 이름을 '한빛콜(042-540-8282)'로 확정하는데 이어 지난 3일 800대의 법인택시에 최첨단 콜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신용카드결제기, 영수증 발급기 등 첨단장비를 장착했다.



시내버스 개혁 실천 선언식 가져

대전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

서 '시내버스 개혁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시내버스의 친절 서비스와 업체 경영구조 혁신 등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사정, 시민단체 각자의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시는 일부 운송비용 부담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나서고 업체는 책임경영제 도입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버스 운행과 노사관계 정립,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승객 창출 등에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또 시민단체는 시민평가단 운영과 현금수입금 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업체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 하게 되며 운수 종사자는 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등 고객만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